



수습이 파업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Q. 연합뉴스가 왜 파업했나요?

= 저희는 이번 파업이 연합뉴스 바로세우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파업은 박정찬 사장 재임기간에 심해진 공정보도 퇴보, 통신 콘텐츠 경쟁력 약화, 근로여건 악화, 사내 민주화 역행, 인사 전횡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공영언론에 대한 경영자의 철학부재 등이 연합뉴스 보도의 공정성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연합이 제대로 된 언론사 노릇을 하는 데 발목을 잡아왔던 얘기죠. 보도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사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에 책임이 큰 박정찬 사장이 다시 연합뉴스호(號)의 선장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른 언론으로 거듭나는 단초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Q. 파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작년 12월부터 붓물 터지듯 이어

진 기수별 성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연쇄적인 기수별 성명도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23년만의 파업에 돌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노조의 경영진 평가에서 70% 이상이 박정찬 사장의 연임을 반대했고, 3월 중순 파업 찬반 투표는 조합원 93.44% 참여에 84.04%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이나 일사천리로 진행된 파업 돌입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려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지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Q. 박정찬 사장이 왜 그렇게 잘못했나요?

= 흔히 지적되는 문제는 보도 공정성의 훼손과 이에 따른 연합뉴스의 신뢰 저하, 인사 전횡으로 인한 조직 사기 저하, 사내 민주주의의 퇴행 등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만연하고 기자들 스스로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자기검열이 일상화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구성원들의 책임이 없을 리 없습니다.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 연합뉴스 구성원 모두가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 모든 잘못을 박정찬 사장 혼자서 했다고 말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일일겁니다. 그러나 박 사장은 최고경영자로서 이 모든 과오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보도의 공정성을 아주 심각하게 퇴보시킨 간부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박사장이니까요.

Q. 기사가 안 나가도 회사에 지장이 없을까요?

= 당연히 있죠. 연합뉴스는 계약사



와 포털사이트 등에 기사를 제공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기사가 안 나가면 지장이 없을 리 없지요. 그럼에도 파업이란 처방에 선포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란 인식이 투영돼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공영언론'

로그래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파업 프로그램은 집회·시위와 다양한 문화행사로 구성됐습니다. 3월 초부터 진행된 대화 국면이 지지부진하자 노조는 최근 투쟁의 수위를 높여 사장실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 프로그램은 보통 4-5시간으로 진행됩니다.

Q. 수습을 댄 지 얼마 안됐는데 파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 정식 사원이 되면 선배들과 신분상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조에 가입해 파업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파업은 조합원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파업에 대한 자신의 기호와 상관없이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설령 불이익을 받더라도 화살은 일반 조합원인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측의 징계는 일차적으로 쟁대위에 내려질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파업에 동참하세요.

아, 그리고 6개월 지나서 수습 댄다고 신분의 불안정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을 누가 했다고 하던데 노조로 바로 신고하세요. 사실이려면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거짓 협박입니다.

Q. 불공정보도는 입사 전 일인데 우

이라거나 '연합짜라시'라고 불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합뉴스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가 노트북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파업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빨리 파업 사태를 끝내고 회사가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파업 참여 조합원 모두가 간절합니다.

Q. 파업 일상이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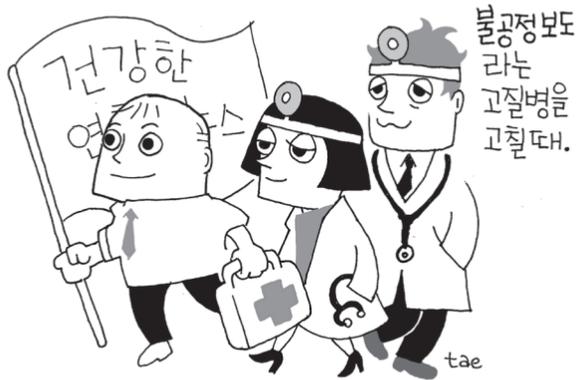
= 자신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파업의 기본 원칙입니다. 나아가 쟁위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파업 프



☞ 1면에 이어

리와 무슨 관계일까요?

= 불공정 보도는 박 사장 재임 기간을 포함해 오래된 연합뉴스의 고질병입니다. 최근 몇년간 정권 편향적인 보도가 더욱 심각해져 연합뉴스 조합원들이 공론화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불공정 보도는 수습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의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합뉴스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과제입니다.



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선배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 새내기 언론인으로서 향후 공정보도를 위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Q. 파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 파업을 짧고 굵게 끝낸다는 것은 모든 파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이란 시간이 긴지 짧은지 판단은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요.

파업이 언제 끝난다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끝내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끝내느냐도 중요합니다.

연합뉴스가 파업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한 목소리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승리를 한 것입니다. 단, 마무리를 잘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어야겠지요. 선불리 현 상황에 타협하기보다는 지금의 원동력을 바탕으로 승리의 화룡점정을 찍는 게 중요합니다. 노조가 파업 대

오를 유지하면서도 대승적이고 유연한 입장으로 박 사장과 대화하고 있어 조만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파업 기간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사측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관계로 월급 명세서 상 마이너스 숫자가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파업이 끝나면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삽화는 연합뉴스 파업을 지지하는 만화가 김태권 작가가 재능기부해주셨습니다. 김 작가는 '십자군 이야기'로 지식만화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책으로 '십자군 이야기', '삼인삼색 미학 오디세이'(공저),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 '어린왕자의 귀환' 등이 있고, '장정일 삼국지'와 '철학학교', '에라스무스 격언집' 등에 삽화를 그렸습니다.

“박 사장, 찬스는 지금입니다!”

7층 피켓시위 후 '박정찬' 삼행시 짓기 경연

연합뉴스 노조는 27일 사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이날 오전 조합원 100여명은 '3주 총력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도록 자신의 입장조차 얼버무린 박정찬 사장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사장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경연을 벌이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사장 출근 전 본사 7층 복도를 가득 채운 조합원들은 시간 끌기로 보이는 사측의 태도에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오전 9시20분께 나타난 박 사장은 굳은 얼굴을 한 채 아무 말 없이 사장실로 직행했다. 입을 떼기엔 커녕 전처럼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자마자 순식간에 조합원들을 지나쳤다.

이후 복도에 연이어 앉은 조합원들은 파업 대오

상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공병설 위원장은 파업참여 인원을 부서별로 전했다. 조합원들은 편집국 사회부와 경제부 등이 한 명도 빠짐없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에 큰 박수로 화답했다.

공 위원장은 “오늘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513명 가운데 비참여자가 92명밖에 안 된다. 시간이 갈수록 대오가 흐트러지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하게 뭉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일부 보직 간부가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이어 '박정찬'으로 삼행시를 지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행시 중에는 박 사장에게 지금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찬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오석민 조합원은 “박스 깔고 거리에 나앉은 저희를/정녕 외면하시겠습니까?/찬스는 지금입니다”고 적었다. 김동호 조합원도 “박 사장님/정말 지금 나가주세요/찬스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읊었다.

이동철 조합원은 “박 사장, 뭘 꾸물거리세요/정말 이렇게 질질 끌 건가요?/찬반투표, 4~7기 제안 얼른 받으시오”라며 빠른 결단을 요구했다.

그동안 투쟁을 돌아보게 하고 감동을 준 삼행시도 있었다. 김준억 조합원은 “박수쳐줍시다/정말 자랑스럽습니다/찬 바람 부는 거리부터 싸워 온 우리”라고 했고, 조준형 조합원은 “박 사장님/정녕 연합의 겨울을 붙잡으실 겁니까?/찬란한 봄날은 이미 왔습니다”고 했다.

파업투쟁 숨은 일꾼

② '140자 속의 투쟁' 연합뉴스 SNS팀

각 부서의 '온라인 전사'들이 파업을 계기로 뭉쳤다. 퍼스널 미디어 시대를 맞아 연합뉴스 노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파업 상황을 외부에 알리며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시작은 연가 투쟁으로 투쟁의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던 2월 말. SNS에 정통한 이광빈 조합원이 정예 멤버를 모았다.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된 이들은 이유미, 고은지, 박자연, 김은정, 권영전 조합원이다.

이광빈 조합원을 필두로 이유미·고은지·박자연 조합원은 노조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며 글, 사진, 영상 등을 올리고 있다. 김은정 조합원은 이를 영문으로 바꿔 게시한다. 권영전 조합원은 페이스북을 전담하면서 트위터 일

도 돕고 있다. SNS에서 연합뉴스 노조 트위터가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다.

권영전 조합원은 “처음에는 무서운 답변이 많았다. ‘정권 말기에 기획 파업하는 거냐’, ‘연합이 파업한다고 나섰으니 조·중·동도 곧 파업하겠네’라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며 초창기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소설가 공지영 씨의 '연합뉴스 힘내라(@congjee)' 등 유명인사의 응원 멘션이 잇따르면서 트위터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40여명에 불과했던 팔로워 수도 40일 만에 6천여명으로 훌쩍 늘었다.

김은정 조합원이 올리는 영문 트윗은 외신 기자들과 사내 외국인 에디터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국가기간

통신사'의 파업을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트위터 활동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공정보도'. 이광빈 조합원은 “파업은 우리 힘으로 직접 끝내자는 게 기조이기 때문에 일정 수위를 벗어난 발언은 자제하는 편”이라면서 “연합뉴스와 파업의 이유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멘션과 일대일 메시지(DM)을 볼 때 SNS팀들은 가장 보람차다고 한다. 또 노조 트윗이 수십번, 수백번씩 리트윗돼서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도 뿌듯한 일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마이너스 월급이 찍힌 날 달린 “앗! 월급이 '뺑(0)원'이 아니었네요”라는 트윗과 26일 올린 “연합뉴

스 특파원들도 파업 대오 유지를 다짐했습니다”라는 트윗은 각기 50번 이상 리트윗됐다.

파업 후에도 연합뉴스 노조는 트위터를 통한 소통은 계속할 계획이다.

권 조합원은 “변해가는 멘션을 보면 시민들에게 점차 신뢰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기쁘다”면서 “트위터가 더 활발히 운영된다면 파업이 끝나고도 조합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빈 조합원은 “연합뉴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점점 늘고 있다”며 “연합뉴스의 기본 역할과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데 파업 후에도 이런 인식이 지속됐으면 한다”고 전했다.